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분석

박미경¹, 문지현^{2*}

¹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²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n analysis of the convergent influence of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on self-efficacy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Mi Kyoung Park¹, Ji Hyun Moon^{2*}

¹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결혼이주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배우자지지는 3.64 ± 0.86 , 성적자율성 3.44 ± 0.93 , 성생활만족 3.14 ± 0.90 , 자기효능감은 3.06 ± 0.64 이었고, 모든 변수들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성관련 변인인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26.9%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on self-efficacy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Data was collected from 171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Jan to Mar 2019.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spouse support 3.64 ± 0.86 , sexual autonomy 3.44 ± 0.93 , sexual satisfaction 3.14 ± 0.90 , self-efficacy 3.06 ± 0.64 and there w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among all variables($p < .01$). Sex-related variables, sexual 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as strong predictors for self-efficacy, and their explanation power was 26.9%.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variety programs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o seek practical approaches to that effect.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Ji Hyun Moon(moonjh86@mokpo.ar.kr)

Received September 3,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3,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만혼화, 결혼기피현상, 양성평등의 확산, 세계화의 흐름 등으로 순수 한국여성과의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다른 나라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1].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00년 전체 혼인 건수의 2.1%였던 것이 2016년 22,462건으로 전체 혼인율의 7.4%에 이르고 최근 15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약 5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2]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가족 간의 갈등, 지원체계의 부족 등으로 이는 가족 및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3]. 또한 이들 대다수의 가정이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편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가족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4]. 게다가 사회활동의 기회 부재 등으로 이웃과의 교류 및 상호간 사회적 자원도 부족하여 여성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5]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통의 어려움,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기회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실정상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 그 중에서도 남편의 지지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배우자지지는 배우자에게 받기를 원하는 심리적, 물리적, 정보적, 인간관계적 도움을 뜻하며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문화적 적응,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회복, 부부갈등의 조정 및 결혼생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변수이다[7]. 실제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았고, 이혼 의도는 낮았으며, 결혼 적응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결혼을 계기로 타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특히 배우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부부간 친밀감을 높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9].

자율성이란 자신이 갖는 외적 또는 내적 조건에 따라 자신만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한다[10]. 성적자율성은 성적인 관계에서 자기 몸을 돌보고 대처할 수 있는 결단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힘으로[11], 성적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적 또는 외적 상황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에 대해 자유롭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 안전한 성 건강을 영위할 수 있다[12].

성이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런 행위이며 기본적인 욕구이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육체를 이완시켜 상호간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13], 만족스런 성생활은 부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데 필요한 주요 변수이다[14]. 실제로 높은 성생활만족은 커플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쉽게 해결하도록 돕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 또한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만족스런 성생활은 부부 친밀감을 높여주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일상생활 능력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16], 높은 성생활만족이 행복한 결혼생활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결혼이주여성은 다양한 성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에게 표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14], 따라서 문화적 배경이 각기 다른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부간 성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성관련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 스스로의 능력, 즉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결과를 얻는데 자신이 필요한 행동을 선택 또는 지속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스스로 선택한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7]. 실제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능동적, 인지적, 행동적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커지며, 삶의 행복감을 증진 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특히 낮은 환경에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는 대상자에게 자율성과 능력을 극대화시켜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간호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대처 능력과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 능동적 행동력을 높이는 자기효능감 개념을 활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까지 국내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상관관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16]만 있을 뿐 배우자지지 및 상관관 변인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늘어만 가는 다문화 가정의 상관관 문제를 부부 관계 안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여성 개인으로서의 삶은 물론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돕는 중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전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34%), 베트남(29.4%), 필리핀(7.0%) 여성들로 편의표집하였으며[2]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M시와 M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자로 모국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고, 대상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 가능하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20-50세 미만의 결혼이주여성이다. 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적정 표본수를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한 Kim과 Noh[19]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Cohen의 검정력 방법에 따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일 경우 최소 표본 수는 119명으로 산출되었고, 최종 분석된 자료는 171명으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배우자지지(Spouse Support)

배우자지지는 Nam[20]이 개발한 총 18문항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배우자지지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와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2.3.2 성적자율성(Sexual Autonomy)

성적자율성은 Kim 과 Kang[21]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총 6개 문항으로 문항별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6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 으로 나타났다.

2.3.3 성생활만족(Sexual satisfaction)

성생활만족은 Chang[22]이 개발한 총 10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자가 평가 도구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났다.

2.3.4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및 Jacobs[23]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홍혜영(1995)이 변안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3개 문항으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17문항),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으로 2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지니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홍혜영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M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M시와 M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병원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거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이 종료된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Kruskal-Wallis로 사후검증하였다.
-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는 Table 1과 같이 평균 30.95세이고, 30대가 47.4%, 29세 이하가 43.9%, 40세 이상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평균 88.85개월이고, 6년-9년이 42.1%, 3년-5년이 25.1%, 3년 미만인 17.0%, 10년 이상이 15.8%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58.5%이고, 대졸 이상이 41.5%이었다. 가족형태는 대가족형태가 51.5%이고, 핵가족 형태가 48.5%이었다. 가계월수입은 200-399만원이 59.1%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이 27.5%, 400-599만원이 10.5%, 600만원 이상이 2.9%이었다. 경제수준은 중 61.4%, 하 33.3%, 상 5.3%순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40.4%로 가장 높고, 없음이 35.6%이며 개신교, 천주교 순이었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70.8%로 가장 높고, 중국 15.2%, 필리핀 14.0%순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 (SD)
Age(year)	≤29	75(43.9)	30.95 (6.67)
	30-39	81(47.4)	
	≥40	15(8.7)	
Marital period (months)	<36	29(17.0)	88.85 (109.08)
	37-60	43(25.1)	
	61-119	72(42.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0(58.5)	
	≥College	71(41.5)	
Family type	Nuclear	83(48.5)	
	Extended	88(51.5)	
Family income monthly (10,000 won)	<200	47(27.5)	
	200-399	101(59.1)	
	400-599	18(10.5)	
	≥600	5(2.9)	
Economic level	Good	9(5.3)	
	Fair	105(61.4)	
	Poor	57(33.3)	
Religion	Buddhism	69(40.4)	
	Catholicism	12(7.0)	
	Protestantism	29(17.0)	
	None	61(35.6)	
Nationality	Chinese	26(15.2)	
	Vietnamese	121(70.8)	
	Philippino	24(14.0)	

3.2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평점평균은 Table2와 같이 3.64점이고, 성적자율성 평점평균은 3.44점이며, 성생활만족 평점평균은 3.14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평점평균은 3.0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 (n=171)

Categories	M±SD	Min	Max
Spouse support	3.64±0.86	1.11	5.00
Sexual autonomy	3.44 0.93	1.00	5.00
Sexual satisfaction	3.14±0.90	1.00	5.00
Self-efficacy	3.06±0.64	1.78	5.00

Table 3. Degree of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Self-efficacy	
			M±SD	t/χ²(p)	M±SD	t/χ²(p)	M±SD	t/χ²(p)	M±SD	t/χ²(p)
Age(year)	≤29 ^a	75(43.9)	3.80±0.81	4.204	3.53±0.93	1.747	3.22±0.88	2.146	3.10±0.65	.874
	30-39 ^b	81(47.4)	3.59±0.91	(.017)	3.43±0.98	(.178)	3.13±0.94	(.120)	3.07±0.66	(.419)
	≥40 ^c	15(8.7)	3.14±0.54	a)c	3.04±0.63		2.70±0.60		2.86±.38	
Marital period (months)	<36	29(17.0)	3.84±0.93	.784	3.55±1.11	1.368	3.04±0.77	1.162	3.08±0.78	.531
	37-60	43(25.1)	3.58±0.92	(.505)	3.25±0.82	(.254)	3.33±1.21	(.326)	3.15±0.67	(.662)
	72-108	72(42.1)	3.64±0.84		3.57±1.01		3.12±0.81		3.05±0.54	
	≥120	27(15.8)	3.52±0.68		3.31±0.64		2.95±0.61		2.95±0.6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00(58.5)	3.62±0.84	-.411	3.45±0.98	.171	3.18±0.97	.798	3.10±0.68	.964
	≥Graduated school	71(41.5)	3.67±0.88	(.681)	3.43±0.88	(.865)	3.07±0.79	(.426)	3.01±0.58	(.336)
Family type	Nuclear	83(48.5)	3.67±0.82	.504	3.53±1.04	1.187	3.15±0.77	.185	3.09±0.65	.514
	Extended	88(51.5)	3.61±0.89	(.615)	3.36±0.82	(.237)	3.12±1.00	(.854)	3.04±0.63	(.608)
Economic level	Good ^a	9(5.3)	4.10±0.85	1.489	4.05±1.22	2.033	3.62±0.75	1.867	3.60±1.09	3.539
	Fair ^b	105(61.4)	3.63±0.77	(.229)	3.42±0.89	(.134)	3.16±0.95	(.158)	3.02±0.56	(.031)
	Poor ^c	57(33.3)	3.58±0.99		3.39±0.95		3.02±0.79		3.06±0.65	a)b,c
Nationality	Chinese ^a	26(15.2)	3.10±0.71	6.495	2.81±0.36	9.399	2.59±0.34	3.287	2.66±0.26	6.785
	Vietnamese ^b	121(70.8)	3.73±0.84	(.002)	3.62±0.99	(<.001)	3.21±0.98	(.002)	3.14±0.68	(.001)
	Philippino ^c	24(14.0)	3.79±0.86	a)b,c	3.24±0.74	a(b	3.35±0.63	a(b,c	3.13±0.55	a(b,c

^aKruskal Walli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 성적자율성,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지지는 Table 3 과 같이 연령에서 29세 이하가 40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고(F=4.204, p=.017), 출신국가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495, p=.002). 성생활만족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3.287, p=.002), 성적자율성도 베트남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495, p=.002). 자기효능감은 경제수준에 따라 상수준이 중과 하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고(F=3.539, p=.031), 출신 국가에 따라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6.785, p=.001). Table 3

3.4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 성적자율성,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배우자지지는 성적자율성(r=.361, p<.01), 성생활만족(r=.305, p<.01), 자기효능감(r=.282,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생활만족은 성적자율성

(r=.451, p<.01), 자기효능감(r=.472,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자율성 역시 자기효능감(r=.414,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즉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able 4. Relationship among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n=171)

Categories	1	2	3	4
Spouse support	1			
Sexual satisfaction	.1305**	1		
Sexual autonomy	.361**	.451**	1	
Self-efficacy	.282**	.472**	.414**	1

*p<.05, **p<.01

1:Spouse support, 2:Sexual satisfaction, 3:Sexual autonomy

4:Self-efficacy

3.5 배우자지지, 성 만족, 성적 자율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입력방식(투입)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차한

계는 .742~.844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이 1.185~1.349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상관계수는 1.875로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향력 분석을 위해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고, 편회귀 잔차도와 정규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이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Table 5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on self-efficacy

(n=171)					
Factor	B	SE	β	t	p
(Constant)	1.517	.216		7.026	<.001
Spouse support	.072	.053	.096	1.347	.180
Self-efficacy					
Sexual satisfaction	.242	.053	.341	4.579	<.001
Sexual autonomy	.153	.052	.225	2.961	.004
$R^2=.311$ Adj $R^2=.269$ $F(p)=21.838(<.001)$					

따라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1.838$,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269로, 설명력은 26.9%였다.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생활 만족($\beta=.341$,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성적자율성 ($\beta=.225$, $p=.004$)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최근 한국사회는 결혼이민자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의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수적인 증가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히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24].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라온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아내, 며느리, 주 양육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부부들의 관계 속에서 이들 여성이 잘 적응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

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0.95세이고 결혼기간은 평균 88.85개월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70.8%, 중국 15.2%, 필리핀 14.0% 순서대로 나타나 Park 과 Moon[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2]와도 일치하였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58.8%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나 최근 늘어가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이주하는 여성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음[24]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지지 정도는 본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베트남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10,25]과 일치하였다. 반면 Lee등[26]의 연구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여 출신국가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연령에 따른 배우자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20대가 40대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7]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는 점과 과거에 비해 결혼이주여성 부부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적자율성은 본 연구에서 중간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10,28]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29,30]에서는 성적 자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력이 성적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0]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0]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결과적으로 저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성이 내국인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자율성을 나타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성생활만족은 본 연구에서 3.14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기혼여성은 3.29점[14], 충남지역 이주여성은 3.45점[31], 중년기 기혼여성은 3.82점[3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에서는 3.8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각기 다른 결과들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 및 환경적인 상황들이 여성의 성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 성생활만족이 높은 사람은 커플

간 성생활에 대한 자연스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30] 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16] 생활 속 스트레스 정도는 낮춰주고 결혼만족도는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결과적으로 부부사이의 높은 성생활만족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생활만족과 성적자율성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특히 성에 대한 부부사이의 의사소통방법 및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결과 가장 낮은 3.06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3.49점[29]과 한국 기혼여성의 3.53점[16]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중국이주여성은 3.36점[16]으로 낮게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이 내국인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고,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자기효능감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간 갈등 및 소통의 부재, 육아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변수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자 힘[17]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지지는 자기효능감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의 협력과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19],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지지와 양육효능감이 양의 상관관계[27]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효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협력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배우자의 지지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26] 배우자지지 정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본 연구결과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

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은 양의 상관관계[29]로 파악되었고, 성적자율성과 성만족도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3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성생활만족과 일상생활 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에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적자율성이 주체적인 성행위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성적자율성이 성생활 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14,30]과 유사하다. 성적자율성을 갖게 되면, 성에 대한 대화를 기피하지 않고, 성생활 만족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할 수 있게 한다는 보고[29]와 성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으면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일상생활 능력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6]와도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높은 성적 자율성을 통한 만족스런 성생활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부부사이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적응 능력과 대처 능력을 높여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만족스런 성생활과 성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 한 개인의 능력 향상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성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특히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4]. 국내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배우자지지가 만족스런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정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도 이러한 요인들이 숨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성에 관한 얘기를 불편해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 상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조사연구만으로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성생활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지지,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중국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자율성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출신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동남아국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국가별로 상이한 가치관과 문화적 차이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성관련 변인과 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27]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적절한 표본수가 유지되었으나 출신 국가별 대상자 수의 분포별 차이로 인한 통계적인 결과[25]로 유추할 수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며 행동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힘이다. 이처럼 높은 자기효능감은 이들 여성의 자율성과 능력을 극대화시켜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배우자 지지정도를 높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부부간에 성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만족스런 성생활 활동에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자들과 여성건강 행정가들은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부부간 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 및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협력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융합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지지 및 성관련 변인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성 자신의 능력을 높여주는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성생활만족, 자기효능감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이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26.9%였다. 결론적으로 성관련 변인인 성적자율성과 성생활만족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어 이들 여성과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전반적으로 사정하여 부부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느끼는 다양한 성관련 문제점을 이해하고 적응능력과 대처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그들의 성관련 변인들의 수준을 알아보고 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지역 내 결혼이주여성만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결혼이주여성 전체에게 일반화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적이 다른 여성들을 평면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분석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언점은 결혼이주여성만을 성관련 변인을 일부 시각에서 고찰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연구 대상에 참여시켜 성관련 변인에 대한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관련요인을 탐색하는 조사 연구만으로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성관련 변인들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D. S. Kim. (2006). A conceptual scheme of international of Koreans and analysis of the marriage and divorce registration dat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25-56.
- [2]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Dynamic statistics of population (Marriage)*, KOSTAT [Online].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3] L. S. Chon & H. J. Cho. (2019). A study on enculturation type and life's satisfaction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277-284.
DOI : 10.15207/JKCS.2019.10.2.277
- [4] H. R. Kim, N. M. Hwang, I. S. Jang, K. J. Yoon & B. J. Kang.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reproductive health conditions an priorities*.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5] G. G. Jeong, Y. H. Kim, K. E. Park, E. A. Lee, J. H. Park

- & S. A. Lee. (2007).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for social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Kyeonggido*. Kyeonggido : Kyeonggido Family Women's research Institute..
- [6] S. O. Kim, H. S. Lim & G. C. Jeong. (2013).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1)*, 221-235. DOI : 10.5392/JKCA.2013.13.11.221
- [7] H. M. Thang. (2005).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1992 -a case of cultural adjustment for Vietnamese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8] M. J. Kim. (2011).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mental health of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9(3)*, 1-28.
- [9] D. Parikj et al. (200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6*, 641-646.
- [10] J. H. Moon. (2019). Convergence Study on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on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4)*, 303-309. DOI : 10.15207/JKCS.2019.10.4.303
- [11] S. Wolf. (1990). *Freedom within reas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12] A. Parkes, M. Henderson, D. Wight & C. Nixon. (2011). Is Parenting Associated with Teenagers' Early Sexual Risk-taking, Autonomy and Relationship with Sexual Partner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3(1)*, 30-41. DOI : 10.1363/4303011
- [13] K. L. Byun. & Y. H. Lee. (2012). The influences of sexual communication style on quality of sex life and components of love among married men and women. *The Korea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4)*, 623-652.
- [14] S. Y. Kim & S. H. Ahn. (2019).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intimacy and satisfaction among women within 1 year after mastectomy.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25(2)*, 219-231. DOI : 10.4069/kjwhn.2019.25.2.219
- [15] K. W. Kim, K. H. Kang & G. H. Jeong. (2012). Self 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cale. *The Korea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6(1)*, 51-59.
- [16] T. Y. Song. (2017).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for sex role stereotype, sex permission and self-efficacy of migrants marrie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Susan.
- [17]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 Company.
- [18] K. S. Park, Y. J. Kim, K. M. Oh, Y. J. Jin, J. H & H. C. Kang. (2008). Communication style, self-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28-34.
- [19] S. H. Kim & Y. G. Noh. (2018). Influence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Korea of Women Health Nursing, 24(2)*, 174-184. DOI : 10.4069/kjwhn.2018.24.2.174
- [20] K. S. Nam. (1988).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pouse support and the body image of female patients who have done mastectomy and hysterectom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21] M. J. Kim & H. S. Kang. (2003). A comparative study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contraceptive users on partner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 and sexual autonomy.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3(6)*, 784-791.
- [22] S. B. Chang. (1989). An analytic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who have had a hysterect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2)*, 160-172.
- [23] M. Sherer, J.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 B. Jacobs.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24] M. K. Park & S. H. Moon. (2016). Effect of an individual breast-feeding promotion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 Nursing, 46(1)*, 128-139. DOI : 10.4040/jkan.2016.46.1.128
- [25] H. K. Jo & H. S. Lim. (2018).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stress on support from spouse and from family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 389-402. DOI : 10.5762/KAIS.2018.19.11.389
- [26] H. S. Lee, C. M. Kim & M. S. Park. (2015). Analyzing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in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6(3)*, 268-277. DOI : 10.12799/jkachn.2015.26.3.268
- [27] S. O. Kim & H. S. Kim. (2016).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child rear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6)*, 462-473. DOI : 10.5392/JKCA.2016.16.06.462
- [28] J. H. Kim & N. C. Kim. (2017). Effects of birth control empowerment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3(1), 1-10.
DOI : 10.4069/kjwhn.2017.23.1.1

- [29] K. W. Kim, K. H. Kang & G. H. Jeong.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DOI : 10.5932/JKPHN.2012.26.1.051
- [30] S. W. Kang et al. (2015). A study on correlations betwee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satisfac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 couples.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49, 119-133.
- [31] K. S. Pyo & M. H. Kwo. (2009).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ulti - cultural families in chungbuk provinc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8, 21-48.
- [32] M. J. Park. (2015). Correlations of marital intimacy, satisfaction of sexual activity,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23, 13-22.

박 미 경(Mi Kyoung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15년 8월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1999년 11월 ~ 현재 : 한사랑병원 간호부장

- 관심분야 : 간호학, 여성건강
- E-Mail : magnuspmk2000@hanmail.net

문 지 현(Ji Hyun Moon) [정회원]



- 199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199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여성건강
- E-Mail : moonjh86@mokpo.ar.kr